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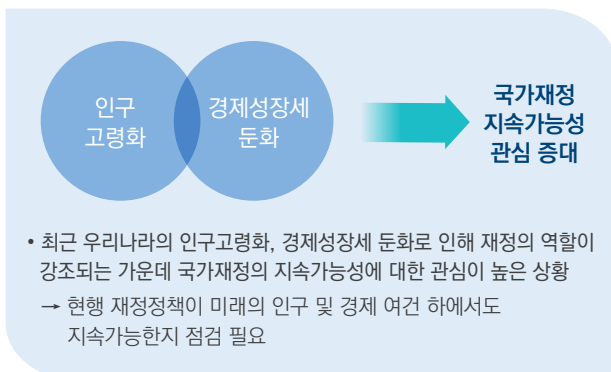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추계세제분석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국가의 재정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자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 논의과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장기 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한 것으로 전망기간 동안 정부의 재정관리 노력 정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번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재량지출 감축 노력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채무 비율을 장기적으로 10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사회보험들은 선제적으로 재정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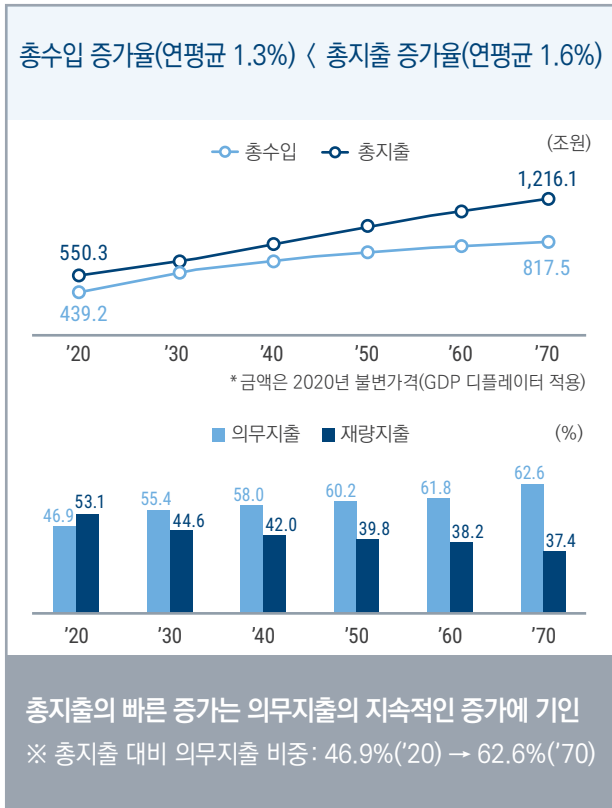
I.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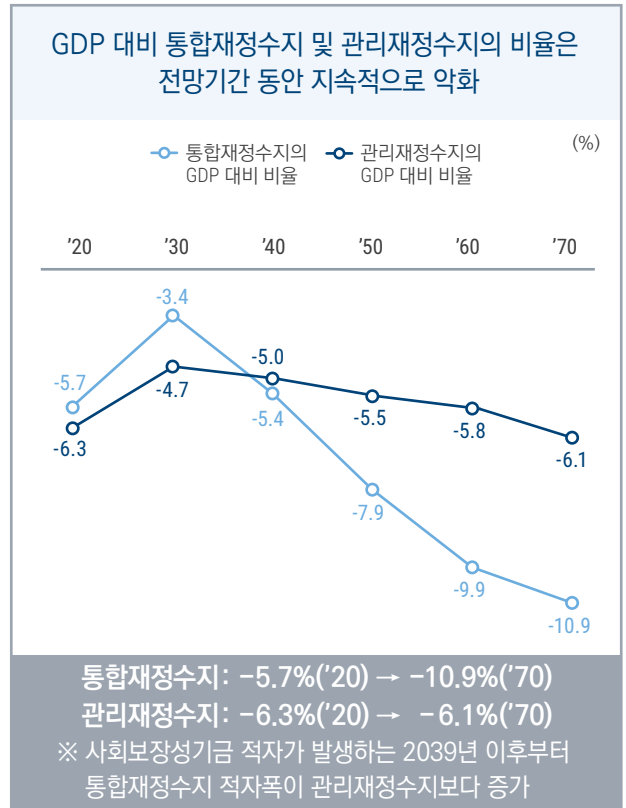
전망 대상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 기간	2020 ~ 2070년(50년간)
전망 기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 및 제도 유지 가정
기본 전제	거시경제변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인구변수: 통계청 전망

II.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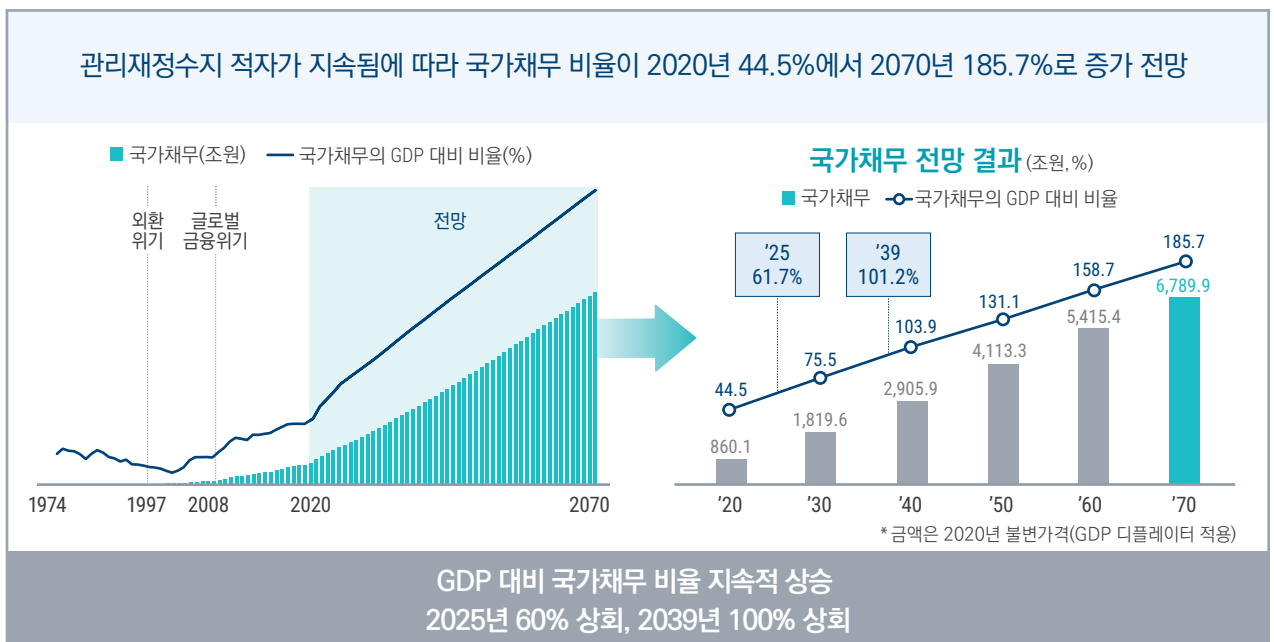
1. 총수입과 총지출



2. 재정수지



3. 국가채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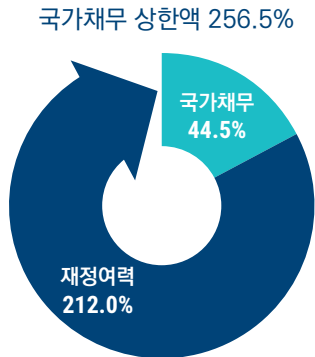


Ⅲ.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1. 재정여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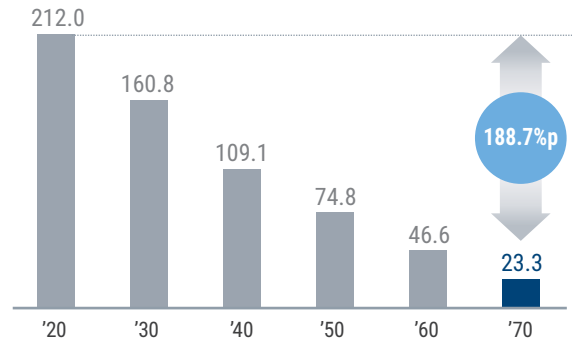
재정여력에 여유가 있는 시기부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 필요

2020년 재정여력 GDP 대비 212.0%



재정여력은 한 국가가 감내 가능한 국가채무의 최대 한도(debt limit)에서 현재 국가채무를 차감한 것
-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 조정을 위한 재정조치를 취할 여유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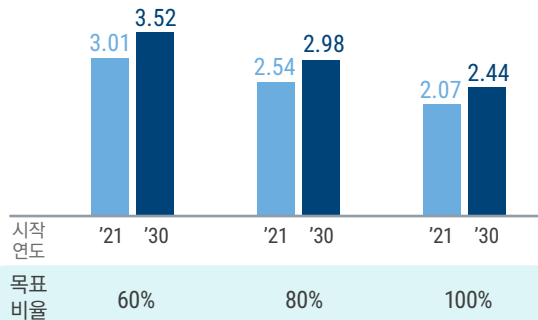
향후 재정여력 추이(%)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여력 급격하게 감소
- 2070년이 되면 2020년 대비 재정여력 188.7%p 감소

2. 국가채무비율 목표와 재정수지 개선

국가채무비율 목표 및 시점별 기초재정수지 개선 필요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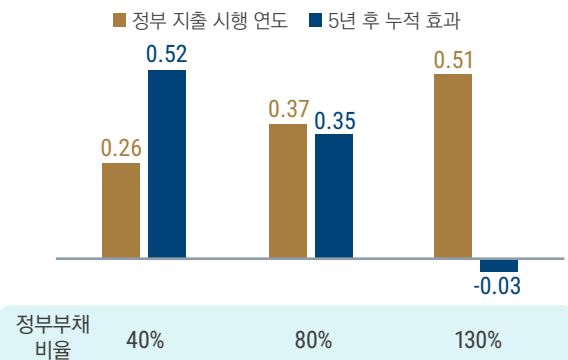


예를 들어, 2070년 국가채무(D1)비율 80% 수준을 유지하려면 2021년 이후 매년 GDP 대비 2.54%p*의 기초재정수지 개선 필요

* 2020년 금액으로 49.1조원

[참고] 정부부채(BIS 통계)비율과 재정정책의 유효성

정부부채(BIS 통계)비율과 정부 지출승수



정부부채 비율 수준에 따른 재정정책의 경기부양(GDP증가) 효과 분석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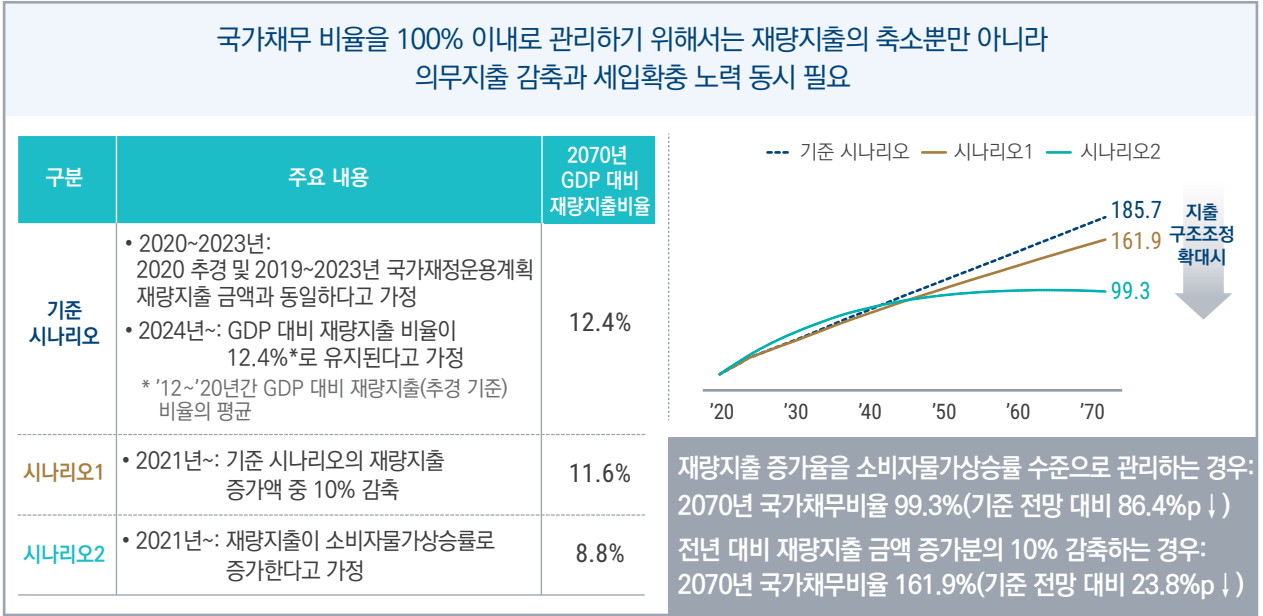
- 정부부채 비율 40%: 확장재정정책 시행 후 정부 누적 지출 승수 증가
- 정부부채 비율 80%: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 누적 지출 승수 감소
- 정부부채 비율 130%: 확장재정정책 시행하면 오히려 GDP 감소현상 발생

* 자료: 김시원, 김원기, 「장기 국가채무 추계치 수준에 따른 재정정책의 유효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20(발간예정)

IV. 시나리오 분석

1. 재량지출 감축 시나리오

지출 감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재량지출을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관리 노력에 따른 국가채무 개선 정도를 시나리오로 구성·제시



2.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인구추계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실시

